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 1957~2002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 1957~2002

손 정 표 (Jung-Pyo Soh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 연구동향 분석 |
| 1. 연구목적 | 1. 연도별 분석 |
| 2. 연구방법 및 한계 | 2. 영역별 분석 |
| 3. 선행연구 개관 | III. 요약 및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관련 7개 학회지, 16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창립 기념논문집, 3개 전문기관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하여 1957~2002년 간의 연구동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1957~1970년 간의 전문기관지 발표논문의 연평균은 42.6편, 1967~2002년 간의 학술지 발표논문의 연평균은 63.1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02년이 가장 높고, 영역별 연평균 발표량의 순위는 정보학, 서지학,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공공봉사, 문헌정보학기초, 도서 및 도서관사, 장서개발(관리) 순으로, 각 영역의 주제별로는 문헌정보학교육, 도서관경영론 전반, 장서개발정책·방침과 장서평가, 참고·정보봉사, 분석서지학, 도서관사, 정보검색 분야가 각 영역의 타주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연구동향, 문헌정보학

Abstract

This study is to represent the research trends of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papers on journals of 7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cieties, collection of papers in celebration of the founding of 16 department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d journals published at 3 specialized institutions from 1957 through 2002.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average yearly papers: in the case of journals published at the specialized institutions - 42.6 pieces; in the case of the academic journals - 63.1 pieces. The year published the largest number of papers: 2002; the order of the number of papers by the domain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information science, bibliography, library management, organizing library materials, public service, foundation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istory of books & libraries, collection development.

Key Words: research trend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jpsohn@knu.ac.kr)

• 접수일 : 2003. 8. 11 • 최초심사일 : 2003. 8. 25 • 최종심사일 : 2003. 8. 31

I. 서 론

1. 연구목적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는 46년 동안 국내의 문헌정보학계는 사회구조 및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많은 학문적 변화와 발전을,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때로는 혼돈과 갈등 속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뿐 아니라 1970년대 말경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대학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함으로써 2003년 6월 현재 4년제 32개교, 전문대 8개교, 계 40개교라는 급속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23개교, 박사과정 개설 10개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16개교에서 배출되는 연구인력의 급증현상 및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 계약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 등의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받아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서서히 양적 증가를 보여주기 시작한 연구논문 수도 1990년대에 들어서는 후술한 바와 같이 5년마다 배증현상을 나타내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연구활동이 1990년대에 들어 활발해짐에 따라 연구자들도 그동안 문헌정보학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개인의 관심분야와 학문적 유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 그 추이를 밝히기 위해 영역 및 주제분야별 전체적인 흐름 파악, 연구방법의 유형별 분석, 인용 및 참고문헌 분석, 질적 측면에서의 접근 시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동향 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바, 지금까지 발표된 24편의 논문 중 21편이 1990~2003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를 보면 거의 대부분 각 영역별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주제 세분화에서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 독자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해 놓고 있어 시기적 변동관계를 비교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경향조사 연구는 단일 분야가 아니라면 학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느 주제에 더 치중하느냐, 각 영역별 연구자가 어느 학술지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수조사(全數調査)에 가깝도록, 또 학문의 전 주제분야에 걸쳐 조사하여야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2~4개 학회지로 한정하고 있어 각 영역 전체의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 주제분야에 걸친 연구동향을 분석·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계에서 설립을 주도한 7개 학회의 학회지와 각 학과 창립기념

논문집 및 3개 전문기관지 등에 게재된 1957~2002년간의 발표 논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한계

2.1 연구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분야별 연구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1~36권(1970~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33권(1974~2002)」,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 1~19권(1984~2002)」,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 1~24집(1986~2002)」,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 1~13권(1972~2002)」, 한국서지학회의 「계간서지학보, 1~25호(1990~2002)」, 한국기록관리학회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권(2001~2002)」에 게재된 논문과 16개 대학 문헌정보(도서관)학과(전공) 창립 기념논문집(또는 기념호)에 수록된 논문¹⁾, 계 2,271편을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비록 개괄적이긴 하지만 한국도서관학회(현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학술지인 「도서관학」 창간호(1970,12)의 발행을 전후한 연구활동의 흐름 파악을 위한 일환으로 전문학술지가 없었던 시기의 연구동향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이 시기의 대표적인 3개 전문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도협월보」²⁾, 「도서관」³⁾, 「국회도서관보」⁴⁾에 게재된 1957~

- 1) 학과 창립 기념논문집(또는 기념호)은 2002년까지 17개 학과가 발행하였으나, 이 중 성균관대의 10~30주년은 「한국비블리아」 제2집(1974), 제6집(1984), 제7집(1994)을 기념특집호로 발행하여 중복됨으로 제외하고 16개 학과에서 발행한 다음과 같은 논문집(또는 기념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세대 「도서관학회지」 제3호(1967: 10주년), 제4호(1979: 20주년); 이화여대 10주년(1970), 20주년(1979), 30주년(1989), 40주년(1999)기념논문집; 중앙대 「도서관학보」 제2집(1973: 10주년), 제4집(1983: 20주년), 제5집(1993: 30주년); 경북대 10주년(1984), 20주년(1994)기념 논문집; 숙명여대 10주년 기념논문집(1986); 강남대 「도서관학」 제5집(1989: 10주년), 제7집(1999: 20주년); 전북대 「전북문헌정보학보」 제3집(1989: 10주년), 제5집(1999: 20주년); 전남대 「문헌정보학보」 제4집(1990: 10주년); 충남대 10주년(1990), 20주년(2002) 기념논문집; 청주대 대학원 10주년(1993), 학부 20주년(1998: CD-ROM형태)기념논문집; 공주대 「학교도서관논집」 제2집(1993: 10주년); 광주대 「문헌정보학보」 제4호(1994: 10주년); 대구가톨릭대 20주년 기념논문집(1997); 한성대 20주년 기념논문집(2000); 송의여전 「도서관학연구지」 제8호(1992: 20주년)와 30주년기념논문집(2002).
- 2) 한국도서관협회의 「도협월보」는 1957년 7월 프린트판으로 창간되었으나 몇차례 정간을 거듭한 후 1960년 3월 1일 속간되면서 제1권 제1호의 권차 부여와 더불어 재창간되었으며, 그 후 다섯 번에 걸친 제호 변경 후 1988년 1·2월호부터 「도서관문화」로 개제되어 오늘에 이름(이용훈, “도서관 전문단체 간행물 현황분석과 평가,” 도서관, 제51권, 제1호(1996, 봄), pp.142-145)
- 3)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은 1946년 3월 1일 「館報」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으나, 1956년 3월~1958년 6월까지 휴간되었다가 1958년 7월 「국립도서관보」로 복간, 1966년 1월 다시 「도서관」이라는 제호로 개제된 후 오늘에 이름(김포옥,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보의 50년사 분석,” 도서관, 제51권, 제1호(1996, 봄), pp.6-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

1970년간에 논문 597편도 함께 조사·분석하였다.

②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각 분야를 필요에 따라 대·소 항목으로 나누어 연도별, 영역별로 살펴보았으며, 분류기준은 DDC20판의 주제분류를 비롯하여 각 영역별 저서의 목차, 선행연구에서 각 학자들이 사용한 분류기준 및 각 영역별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연구자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분류기준의 항목수는 8개 영역, 75개 대주제와 124개 소주제로 설정하였다.

2.2 연구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만으로 국한하였으며, 문헌정보학계에서 설립을 주도하지 않은 관련 학술지(예: 한국정보과학회지, 한국고문서학회지 등)와 대학논문집 등에 수록된 문헌정보학분야 논문은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범위를 학술지만으로 국한한 것은 학자들의 관심분야나 학문의 유행, 역사적 흐름과 발전단계 및 미래의 예측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학술지이기 때문이다.

② 이 연구는 각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계량적 분석만으로 그쳤으며, 연구방법의 유형별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기법 또는 적용기법별과 같은 미시적 분석은 제외하였다.

③ 외국인 학자가 기고한 논문과 도서관 현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은 이 연구의 목적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흐름과 주제별 관심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④ 2개 호(號) 이상에 걸쳐 이어진 논문은 1편으로 산정하였다.

3. 선행연구 개관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보면 1979년에 최초의 논문이 발표된 이래 총 24편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1980년대가 2편, 1990년대가 14편, 2000년대가 7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방향을 보면 양적연구가 21편, 인용분석 연구가 3편으로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선행연구 중 국내 문헌정보학을 대상으로 한 19편의 양적 선행연구⁵⁾를 중심으로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는 1964년 4월 17일 창간을 본 이래 동일 제호로 오늘에 이름(홍기철, “「국회도서관보」 수록기사에 대한 분석,” 도서관, 제51권, 제1호(1996, 봄), pp.25-26)

5) 2003년까지 발표된 양적 선행연구는 총 21편이지만, 이 중 1999년에 발표된 권희선의 논문은 미국의 기록관리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권희선, “미국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 American Archivist의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1999), pp.311-316), 2000년에 발표된 최

1979년 나성실은 「박준식 편, 한국도서관학관계 문헌색인: 1945~1974」⁶⁾에 수록된 1945~1974년간의 문헌정보학 관계 논문·기사 4,852편, 석사학위 논문 60편, 계 4,912편을 대상으로 하여 논문·기사는 도서관일반, 관종별 분야, 주제별 분야의 3개 영역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서는 이 색인의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관 일반을 3개 주제, 관종별은 23개 주제, 주제별은 10개 주제로 나눈 후, 다시 필요에 따라 세구분하여 10년 단위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학위논문은 16개 주제로 나눈 후, 다시 필요에 따라 관종별로 세구분하여 1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⁷⁾

1982년 한복희는 1959~1981년간에 발표된 학위논문 163편, 1970~1981년간 한국문헌정보학회의 「도서관학」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도서관학논집」에 게재된 논문 93편, 계 256편을 대상으로 대학별, 수여학위별, 연도별 학위논문 분포와 분야별, 연도별 학회지 게재논문 분포 및 분야별 추이를 5개영역, 30개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⁸⁾

1989년 엄영애는 1959~1988년간에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312편, 1970~1988년간의 「도서관학」과 「도서관학논집」에 게재된 논문 175편, 계487편을 대상으로 하여 23개 주제로 구분한 후 10년 단위로 학위논문과 학회지 수록논문의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⁹⁾

1992년 김상호는 서지학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1961~1991년간에 발표된 학위논문 154편, 서지학회와 문헌정보학 관계 각종 학술지, 한국학분야 학술지와 대학 논문집, 출판·인쇄·언론분야의 각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602편, 계756편을 상기한 학술지 발간분야별로 6개 주제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¹⁰⁾

1993년 문경민은 1959~1991년간에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589편, 1970~1991년 간에 「도서관학」,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03편, 계 892편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¹¹⁾

같은 해 정동열은 1970~1992년간의 「도서관학」,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에 발표된 논문 338편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13개 대주제와 26개 소주제로 나누어 5년 단위로 파악한 후, 연구자, 연구방법, 가설설정여부,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이론의 효율성 등 6개 분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하였다.¹²⁾

희곤의 논문(최희곤,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 저작의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2000), pp.135-156)은 1999년에 발표된 같은 저자의 논문(각주 19참조)의 내용과 일치하여 이들을 제외하고 19편만을 개관하였다.

- 6) 朴俊植 編, 韓國圖書館學關係文獻索引: 1945-1974(大邱 : 慶北圖書館學會, 1976)
- 7) 羅成實, “韓國圖書館學研究의 傾向에 관한 研究(I); 1945-74, 30年間に 發表된 論文記事의 計量的 分析,” 崇義論叢, 第4輯(1979), pp.37-83.
- 8) 韓福姬, “우리나라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 1959년부터 1981년까지,” 人文科學研究所論文集(忠南大學校), 제9권, 제2호(1982), pp.567-588.
- 9) 엄영애,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 30주년기념 학술논문집(1989), pp.211-235.
- 10) 김상호, “한국의 서지학 동향,” 書誌學研究, 第8輯(1992), pp.353-362.
- 11) 문경민, 문헌정보학 연구동향분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12) 정동열,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第 10卷, 第2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

1994년 김길자는 1959~1992년 2월까지 발표된 문헌정보학 관련 국내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 490편, 박사학위논문 53편, 계 543편 중 원전확인이 가능한 521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내용,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방법 등의 동향을 연대별, 주제영역별(7개 영역 53개 주제)로 분석하였다.¹³⁾

1996년 김포옥은 광복 후(1946. 3. 1: 창간호)~1995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한 전문기관지인 「도서관」에 게재된 문헌정보학 관련 논문 1,445편을 대상으로 하여 13개 주제로 나누어 5년 단위로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¹⁴⁾

같은 해 홍기철은 1964년 4월(창간호)~1995년간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국회도서관보」에 게재된 문헌정보학 관련기사 1,618편을 대상으로 하여 1964~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5의 4단계로 나누어 23개 주제별로 비교·분석하였다.¹⁵⁾

또, 같은 해 한상완과 조인숙은 공동논문에서 1970~1995년간에 걸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도서관학논집」,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에 발표된 논문 791편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먼저 연구자, 논문주제, 인용된 참고문헌의 세 측면으로 나누고, 그 아래 연구자는 인구통계별로, 논문주제는 문헌정보학, 정보학, 서지학으로 대구분한 후 문헌정보학은 25개 주제, 정보학은 21개 주제, 서지학은 5개 주제로 나누어 학회지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 밖에 논문유형별과 게재논문의 언어별 분포 및 인용된 참고문헌수와 언어별 분포도 함께 분석·제시하였다.¹⁶⁾

1997년 강순애는 서지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1986~1996년간의 「서지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122편에 대한 소스문헌 분석과 이용문헌 분석을 하였는데, 이 중 이 연구와 관련된 소스문헌 분석을 보면 저자관련 사항과 주제관련 사항으로 대별한 후, 주제관련 사항은 다시 8개 대주제 영역 및 연도별과 34개 세부주제 영역별로 나누어 그 분포도를 분석하였다.¹⁷⁾

1999년 조찬식은 1993~1997년간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237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연구추이, 연구주제별(12개 분야) 및 연구방법별 동향,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분석별 동향 등을 분석·제시하였다.¹⁸⁾

같은 해 최희곤은 1957~1997년간에 걸쳐 국내에서 발행된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 저작을 대상으로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저자별, 26개 주제별, 5개 대학별 생산성을 비롯한

號(1993, 12), pp.23-41.

13) 김길자, 우리나라 석·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분석(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14) 김포옥, 전개논문, pp.3-23.

15) 홍기철, 전개논문, pp.24-52.

16) 한상완, 조인숙,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제51권, 제1호(1996, 봄), pp.114-139.

17) 강순애, “韓國의 書誌學研究傾向,” 書誌學研究, 第14輯(1997, 12), pp.1-21.

18) 조찬식,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1999, 9), pp.45-61.

8개 부문의 생산성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¹⁹⁾

2000년 한복희는 1980~1999년간에 발행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의 4개 학회지와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정보관리연구」의 3개 전문기관지에 게재된 논문 2,299편을 대상으로 49개 주제분야로 나누어 주제별, 연도별로 동향을 분석하였다.²⁰⁾

같은 해 이란주와 변자영은 공동논문에서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방법론과 연구동향을 다룬 논문 10편을 선정한 후, 이를 양적 연구, 인용연구, 질적 연구로 나누어 그 연구방향을 분석하였다.²¹⁾

2001년 정진식은 1996~2000년간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39편에 대한 주제별 동향을 10개 대주제와 41개 소주제로 세분하여 분석함과 더불어 이 논문들이 인용한 8,371건의 인용문헌에 대한 형태별, 언어별 분석과 인용된 잡지의 주제영역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²²⁾

2002년 이명희는 1997~2001년간에 발행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597편을 대상으로 24개 주제로 나누어 학회지별, 주제별, 연구자별로 분석한 후,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가설설정 유무, 준거이론 유무, 연구비지급 유무 및 종류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²³⁾

2002년 이란주와 임지혜는 공동논문에서 서지학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0~2001년의 2년 동안 「서지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51편에 대한 주제별 동향을 8개 주제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 논문들에서 인용한 1,321건의 인용문헌을 참고문헌의 유형별 및 언어별, 인용학술지의 종류 및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²⁴⁾

2003년 최희곤은 1971~2002년간에 걸쳐 LISA와 ISA에 수록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74편을 대상으로 그 연구동향을 저자별, 15개 주제별, 66개 수록 학술지별을 비롯한 12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생산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문헌에서 인용한 문헌을 형태별, 연도별 및 국내외별로 분석·제시하였다.²⁵⁾

19) 최희곤,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분석,” 情報管理學會誌, 第16卷, 第3號(1999, 9), pp.137-158.

20) 한복희, “지식혁명과 문헌정보학의 과제,” 200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0, 1.21 청주대학교 청석관 세미나실), pp.1-10.

21) 이란주, 변자영, “문헌정보학 연구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1권, 제2호(2000, 12), pp.141-155.

22)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9), pp.55-77.

23)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9), pp.287-309.

24) 이란주, 임지혜,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회 발간의 「書誌學研究」에 한정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2, 3), pp.323-344.

25) 최희곤,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연구; LISA & ISA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3, 3), pp.61-79.

II. 연구동향 분석

1. 연도별 분석

먼저 전문기관지인 「도협월보」, 「도서관」, 「국회도서관보」를 제외하고 이 연구의 분석 대상범위에 포함된 전문학술지 중 가장 오래된 학술지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간행 「도서관학회지」 제3호가 학과 창립 10주년 기념호로 발간된 1967년부터 2002년까지 36년 동안 5개 학회지와 문헌정보(도서관)학과(전공)창립 기념 논문집 또는 기념호에 발표된 논문의 연도별 분포현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영역별, 연도별 학술지 수록 논문 현황

(단위: 편)

영역 연도	문헌정보학 기 초	도서관 경 영	자 료 조 직	장서개발 (관 리)	공 공 봉 사	서지학	도서 및 도서관사	정보학	계
67	1	1	1	1	2	·	·	·	6
68	·	·	·	·	·	·	·	·	·
69	·	·	1	·	·	·	·	·	1
70	2	1	2	·	3	3	1	1	13
71	1	1	1	·	·	1	·	·	4
72	1	·	1	·	·	1	2	·	5
73	2	2	·	1	1	3	·	3	12
74	1	5	·	1	2	4	2	1	16
75	1	·	·	2	·	4	·	·	7
76	·	2	1	·	1	4	1	1	10
77	1	2	3	·	·	2	·	·	8
78	2	6	1	·	5	2	1	1	18
79	2	7	2	·	3	6	2	5	27
80	·	4	4	·	3	·	1	3	15
81	2	3	2	2	4	·	1	4	18
82	1	1	3	2	1	1	2	2	13
83	5	2	2	·	4	4	1	1	19
84	1	9	7	3	1	6	1	8	36
85	2	8	4	·	2	·	1	6	23
86	2	5	2	2	6	8	4	12	41
87	·	3	6	1	1	9	·	11	31
88	2	5	3	1	2	7	1	15	36
89	7	17	3	1	6	12	5	17	68
90	7	14	6	2	4	36	2	17	88

91	4	3	13	·	1	20	3	16	60
92	4	13	8	1	5	19	2	19	71
93	8	15	17	3	13	34	3	22	115
94	2	23	16	3	11	49	2	30	136
95	4	17	9	2	6	24	4	21	87
96	7	22	15	·	8	20	4	20	96
97	9	41	12	3	11	35	4	33	148
98	12	27	18	8	20	34	6	38	163
99	16	51	17	9	18	36	4	51	202
00	13	47	19	5	18	45	5	57	209
01	7	52	21	11	31	29	3	54	208
02	18	86	22	8	31	47	6	43	261
계	147	495	242	72	224	505	74	512	2271
(%)	(6.5)	(21.8)	(10.6)	(3.2)	(9.9)	(22.2)	(3.3)	(22.5)	(100.0)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6년간 발표된 총 논문수는 2,271편으로, 연평균 63.1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표량의 연도별 순위를 보면 2002년이 261편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00년의 209편, 2001년의 208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1997년까지 거의 역연도순으로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7년 동안 급속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5년 단위로 묶어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5~1999년이 전체의 30.6%로, 연평균 139.2편, 2000~2002년이 29.9%로, 연평균 226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8년간 발표된 논문수가 36년 동안 발표된 전체 논문수의 약61%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1970년 이전 단위를 1로 하여 그 비를 산출해 볼 때 약 1:4:6:9:17:41:61:98로서, 5년 단위별 평균 증가비가 2.0으로 나타나 5년마다 거의 배증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말경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대학들이 학부과정을 설치함과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학들에 석·박사과정이 개설됨으로써 연구인력의 급증현상을 초래한 한편,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 계약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의 영향은 물론 교수를 비롯한 연구인력의 정년에 따른 세대 교체의 기대심리까지도 이에 가산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음으로 영역별 발표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학 영역이 가장 많고(22.5%), 그 다음으로 서지학(22.2%), 도서관경영(21.8%), 자료조직(10.6%), 공공봉사(9.9%), 문헌정보학기초(6.5%), 도서 및 도서관사 (3.3%), 장서개발 영역(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보여주었던 1위 도서관경영, 2위 서지학, 3위 정보학, 4위 공공봉사, 5위 자료조직, 6위 도서 및 도서관사, 7위 장서개발(관리), 8위 문헌정보학 기초 영역의 순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으며, 특히 정보

학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국내의 교육과정상에 반영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영역별,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 현황 (단위:편)

연도 영역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계(%)
문헌정보학 기초	1	7	6	9	13	25	48	38	147 (6.5)
도서관경영	1	9	17	19	38	68	158	185	495 (21.8)
자료조직	2	4	7	18	18	60	71	62	242 (10.6)
장서개발 (관리)	1	2	2	7	5	9	22	24	72 (3.2)
공공봉사	2	6	9	13	17	34	63	80	224 (9.9)
서지학	·	12	18	11	36	158	149	121	505 (22.2)
도서 및 도서관사	·	5	4	6	11	12	22	14	74 (3.3)
정보학	·	5	7	18	61	104	163	154	512 (22.5)
계(%)	7 (0.3)	50 (2.2)	70 (3.1)	101 (4.4)	199 (8.8)	470 (20.7)	696 (30.6)	678 (29.9)	2271 (100.0)
연평균(편)	2.3	10.0	14.0	20.2	39.8	94.0	139.2	226.0	63.1

이를 다시 5년 단위로 묶어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도서 및 도서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이 총 발표 논문수의 75% 이상을 1990~2002년의 13년 동안에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 연도 단위별/영역별로는 2000~2002년間に 발표한 도서관경영 영역(185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정보학 영역(163편), 같은 기간의 도서관경영 영역(158편)과 1990~1994년의 서지학 영역(158편), 2000~2002년의 정보학 영역(154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경영 영역은 총 발표논문 495편중 69.3%(343편)가 1995~2002년의 8년 동안에 발표되어 가장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36년 동안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기한 결과 중 1970년 이전의 실태를 보면 발표논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술한 연구방법 및 한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분석대상 범위를 전문학술지에 수록한 논문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1970년까지는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 10주년 기념호인 「도서관학회지」 제3호를 제외하고는 발간된 학술지가 없는데서 기인된 현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학술지가 없었던 시기인 1957년~1970년간의 연구동향도 개략적이거나 함께 분석하여 1970년 전후를 연계시킨 연구활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당시 학술논문 발표지로 많이 활용되었던 3대 전문기관지인 「도협월보」, 「도서관」,

「국회도서관보」를 중심으로 그 시기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957~1970년간 상기한 전문기관지에 발표된 논문현황을 5년 단위로 묶어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14년간 발표된 논문수는 597편으로, 연평균 42.6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년 단위별 발표 논문수는 1966~1970년이 전체의 68%(연평균 81.2편), 1961~1965년이 25%(연평균 29.8편), 1957~1960년이 7%(연평균 10.5편)로 나타나, 특히 1966~1970년의 5년간 발표량은 그 당시의 연구인력으로 볼 때 실로 대단한 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3> 1957~1970년간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도협월보·도서관·국회도서관보를 대상으로) (단위: 편)

영역	항목	연도			계(%)
		57~60	61~65	66~70	
문헌정보학 기초	일반·이론	1	2	4	7
	교육과정·교육제도	3	7	16	26
	연구방법론	1	.	.	1
	계	5	9	20	34(5.7)
도서관경영	행정	2	9	27	38
	경영	2	16	41	59
	인사관리	.	.	7	7
	도서관관련 법규	.	10	8	18
	상호협력	.	1	15	16
	건물 및 설비	1	8	9	18
	자료보존	.	9	7	16
	계	5	53	114	172(28.8)
자료조직	분류법	6	15	38	59
	목록법	3	9	23	35
	계	9	24	61	94(15.7)
장서개발(관리)		.	1	15	16(2.7)
공공봉사	참고·정보봉사	.	4	19	23
	일반봉사	.	5	27	32
	독서교육(지도)	5	18	27	50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	.	1	3	4
	계	5	28	76	109(18.3)
도서 및 도서관사		6	10	23	39(6.5)
서지학	고서지	9	18	66	93
	현대서지	3	2	13	18
	계	12	20	79	111(18.6)
정보학	일반·이론	.	4	13	17
	도서관자동화	.	.	5	5
	계	.	4	18	22(3.7)
총 계(%)		42 (7.0)	149 (25.0)	406 (68.0)	597 (100.0)

이를 다시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서관경영 영역이 가장 많고(28.8%), 그 다음으로 서지학(18.6%), 공공봉사(18.3%), 자료조직(15.7%), 도서 및 도서관사(6.5%), 문헌정보학기초(5.7%), 정보학(3.7%), 장서개발(관리) 영역(2.7%)의 순으로 나타나, <표 2>로 제시된 학술지 수록 논문의 영역별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서지학, 자료조직, 문헌정보학기초, 장서개발(관리) 영역은 동일한 순위를, 다른 4개 영역은 1단계를 서로 달리하는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연구영역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하여 보면 1970년대 이후에는 정보학 영역이 두드러진데 반해 이전에는 대체로 도서관경영, 공공봉사 영역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영역별 분석

1967~2002년간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각 영역별 현황을 5년 단위로 묶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문헌정보학기초 영역

문헌정보학기초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문헌정보학기초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 현황 (단위:편)

항목		연도								계(%)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문헌정보학 이론	일반	1	5	2	·	1	5	4	4	22
	기록관리학								2	2
	역사·사정	·	1	·	·	·	1	5	·	7
	연구동향	·	·	·	·	1	3	6	9	19
	계	1	6	2	·	2	9	15	15	50(34.0)
문헌정보학 교육	일반	·	·	3	4	4	5	7	1	24
	교육과정	·	1	·	3	3	2	6	13	28
	교수방법	·	·	·	·	·	·	5	1	6
	교육환경	·	·	·	·	·	2	1	2	5
	비교연구	·	·	·	2	2	1	3	·	8
계	·	1	3	9	9	10	22	17	71(48.3)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일반	·	·	1	·	1	4	5	4	15
	논문작성법	·	·	·	·	·	·	4	1	5
	계	·	·	1	·	1	4	9	5	20(13.6)
정보와 사회	·	·	·	·	1	1	2	·	4(2.7)	
도서관단체	·	·	·	·	·	1	·	1	2(1.4)	
총 계 (%)		1 (0.7)	7 (4.8)	6 (4.1)	9 (6.1)	13 (8.8)	25 (17.0)	48 (32.6)	38 (25.9)	147 (100.0)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36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147편으로, 연평균 4.1편을 발표하여 대체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5.9%, 연평균 12.7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이 1995~1999년의 32.6%(연평균 9.6편), 1990~1994년의 17.0%(연평균 5.0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동안의 발표율을 보면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어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연구가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교육이 전체의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관단체(1.4%)와 정보와 사회(2.7%)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제 분야에서는 문헌정보학 이론분야의 경우 일반(22편)이, 문헌정보학 교육분야의 경우 교육과정(28편)이,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분야의 경우 일반(15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주제분야 중 연구동향과 교수방법, 교육환경,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인용 및 참고문헌의 서지 기술형식 분야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2.2 도서관경영 영역

도서관경영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도서관경영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 현황 (단위:편)

항목	연도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계(%)
		도서관행정	일반·관종별		2		1	1		1
	지적자유·권리선언								3	3
	계		2		1	1		1	3	8(1.6)
도서관 관련법규·기준	납본제도						1		1	2
	저작권				3		4	5	16	28
	관련법규·규정		1				2	2	3	8
	도서관기준				1	3		4		8
	계		1		4	3	7	11	20	46(9.3)
도서관 경영론	일반·관종별		1	3		9	12	27	22	74
	품질관리(TQM)							1	5	6
	기록관경영							1	6	7
	아웃소싱								2	2
	계		1	3		9	12	29	35	89(18.0)
정책 및 전략론			3					6	6	15(3.0)
계획론			1	1			1	5	2	10(2.0)
조직론			1			3	5	8	6	23(4.7)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

인사관리	일반·관종별	1	1		1	1		2	6	
	사서직·전문성					4	8	14	39	
	교육훈련						1	5	8	
	정원관리						1	2	3	
	직무내용 및 분석					1	1	1	3	
	계	1	1		1	5	12	22	17	59(11.9)
의사결정						1			1(0.2)	
의사전달								1	1(0.2)	
인간관계	갈등							2	2	
	동기유발							2	1	3
	사기·직무 태도·직무만족			1		2	1	4	2	10
	직무스트레스							1		1
	계			1		2	1	9	3	16(3.2)
지도성						1	2	4	7(1.4)	
작업관리				1				1	2(0.4)	
예산관리			1	1	1	1	3		7(1.4)	
열람관리				1				1	2(0.4)	
장서 (서고) 관리	일반				1			1	2	
	자료보존						4	2	12	18
	계				1		4	3	12	20(4.1)
마케팅				1	1	2	7	12	23(4.7)	
상호협력 · 도서관망	일반		4	3	4	3	4	6	24	
	상호대차					1	2	2	2	7
	목록작성		1			1		1	2	5
	참고·정보봉사		1					2		3
	서지·서지데이터 베이스					1		3	1	5
	장서개발								4	4
	문헌(원문) 제공서비스							4	1	5
	정보유통					1	4	4	7	16
	계		2	4	3	8	9	20	22	69(13.9)
자료별 (부서별) 관리	지정도서			3		1	1			5
	연속간행물					2		1		3
	참고자료							1		1
	시청각자료						1			1
	디지털자료						1	8	4	13
	문서·기록물					1	1	1	5	8
	학위논문					1	1	1		3
	정부간행물							1		1
	고서·계보						1		1	2
	주제별자료								1	1
계			3		5	6	13	11	38(7.7)	

건축 및 설비	건축계획				2			3	6	11	
	설비							1	1	2	
	비품				1			1		2	
	계				3			2	3	7	15(3.0)
도서관 측정·평가							2	7	15	24(4.9)	
도서관실 태	도서관		2		1			2	5	2	12
	기록(문서)관								1		1
	계		2		1			2	6	2	13(2.6)
지식경영 (관리)								2	5	7(1.4)	
총 계 (%)		1 (0.2)	9 (1.8)	17 (3.4)	19 (3.9)	38 (7.7)	68 (13.7)	158 (31.9)	185 (37.4)	495 (100.0)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36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495편으로, 연평균 13.8편을 발표하여 정보학, 서지학 영역과 함께 연구가 활발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37.4%, 연평균 61.7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31.9%(연평균 31.6편), 1990~1994년의 13.7%(연평균 13.6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5~2002년의 8년간에 걸친 발표율이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가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총 22개 분야 중 도서관경영론 전반(18.0%), 도서관 상호협력(망)(13.9%), 인사관리(11.9%) 등 3개 분야가 10% 이상, 도서관관련 법규·기준(9.3%) 등 6개 분야가 4~10%로 나타나 대체로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한 두드러진 편중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행정(1.6%)을 비롯한 8개 분야는 36년 동안 2.0%(9.9편) 미만의 저조한 발표율을 보여주어 대체로 관심도가 낮은 연구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대주제분야 중 특기할만한 소주제분야를 들면 도서관 관련 법규·기준분야의 경우 저작권(28편)이, 도서관경영론 전반의 경우 도서관 개념을 포함한 일반·관종별(74편)이, 인사관리분야의 경우 사서직과 전문성(39편)이, 상호협력(망)분야의 경우 협력(망) 일반(24편)과 정보유통(16편)이 다른 소주제분야에 비해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관심도가 높아진 주제분야를 들어보면 저작권, 정책·전략론, 조직론, 자료보존, 마케팅, 정보유통을 들 수 있고, 이 중 특히 마케팅분야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서비스 품질평가', '고객만족도', '고객관리' 측면의 연구가 눈에 띄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비교적 새로운 관심대상 분야로 등장한 주제로는 도서관측정 및 평가, 디지털자료(실)관리, 품질관리(TQM), 기록관경영, 지식경영 등을 들 수 있다.

2.3 자료조직 영역

자료조직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36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242편으로, 연평균 6.7편을 발표하여 8개 영역 중 중간 정도의 연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5.6%, 연평균 20.7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29.4%(연평균 14.2편), 1990~1994년의 24.8%(연평균 12.0편)의 순으로 나타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구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목록법분야가 전체의 49.6%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분류법분야(40.5%)로 이들 두 분야의 연구실적이 전체의 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색인작성법(1.2%)과 주제분석분야(4.2%)가 생성역사에 비해 낮은

<표 6> 자료조직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 현황 (단위: 편)

항목		연도								계(%)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자료조직 일반					1	1	1			3(1.2)
	일반						1		3	4
분류법 (지식 구조)	역사					1	3			4
	분류규정·체계		1		5	5	17	22	19	69
	비교분류					2	3	2	4	11
	도서기호	1	1	2		1	3	2		10
	계	1	2	2	5	9	27	26	26	98(40.5)
목록법	일반						1	3	3	7
	역사			1	1	1		1	3	7
	목록규칙·체계	1	2	4	5	5	11	19	10	57
	MARC					1	11	5	4	21
	온라인열람목록						1	3		4
	접근점						2	1	3	6
	목록이용행태				4		2	8	1	15
계	1	2	5	10	7	30	40	25	120(49.6)	
주제분석	일반						1			1
	주제명표목				1			1		2
	시소러스						1	2	3	6
	키워드								1	1
계				1		2	3	4	10(4.2)	
색인작성법				1	1		1		3(1.2)	
메타데이터							1	7	8(3.3)	
총 계 (%)		2 (0.8)	4 (1.7)	7 (2.9)	18 (7.4)	18 (7.4)	60 (24.8)	71 (29.4)	62 (25.6)	242 (100.0)

관심도를 보이는 연구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제분야에서는 분류법 분야의 경우 분류규정·체계(69편)가, 목록법의 경우 목록규칙·체계(57편)와 MARC(21편), 목록이용행태(15편)가 다른 소주제에 비해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에 들어서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한 분야라고 하겠다.

이 밖에 2000년을 전후해서 새로운 관심대상 분야로 등장한 주제를 들어보면 메타데이터를 들 수 있다.

2.4 장서개발(관리) 영역

장서개발(관리)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36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72편으로, 연평균 2.0편을 발표하여 8개 영역중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하지 못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33.3%,

연평균 8.0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5년간으로 전체의 30.6%(연평균 4.4편)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두 기간의 발표율이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있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구가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7> 장서개발(관리)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 현황 (단위:편)

항목	연도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계(%)
		장서개발 (관리)일반	일반이론					1	2	6
	콘텐츠관리								3	3
	계					1	2	6	7	16(22.2)
정책·방침		1	1	1	2		3	6	5	19(26.4)
장서개발기준	장서구성			1	1	2	1	1		6
	폐기				2					2
	계			1	3	2	1	1		8(11.1)
장서평가			1		1	1	2	6	8	19(26.4)
수서업무					1	1	1	3	4	10(13.9)
총 계 (%)		1 (1.4)	2 (2.8)	2 (2.8)	7 (9.7)	5 (6.9)	9 (12.5)	22 (30.6)	24 (33.3)	72 (100.0)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장서개발(관리)정책·방침과 장서평가가 공히 26.4% (각 19편)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장서개발 일반(22.2%)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주제분야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관심대상 분야로는 장서개발 범위가 웹 자료에까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생겨난 콘텐츠관리분야를 들 수 있다.

2.5 공공봉사 영역

공공봉사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공공봉사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단위: 편)

항목		연도								계(%)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공공봉사일반							2		3	5(2.2)
참고·정보봉사	일반	1	2	3	2	4	8	12	10	42
	전자정보서비스						3	9	20	32
	참고사서					1		2		3
	조직·제도						1	4	2	7
	상담·커뮤니케이션		1		2		2	1	1	7
	평가					2	8	3	11	24
계		1	3	3	4	7	22	31	44	115(51.3)
일반봉사	일반	1	1	2	2				1	7
	연장봉사							1	1	2
	도서관 프로그램					1		2	1	4
	계	1	1	2	2	1		3	2	13(5.8)
특수봉사	일반			1						1
	장애인				1	1	1	1	3	7
	노인							1	2	3
	계			1	1	1	1	2	5	11(4.9)
지역개방							1	1	2(0.9)	
대공중관계 (전자게시판 등 포함)				1				2	1	4(1.8)
독서교육 (지도)	일반					1		4	3	8
	독서심리 (능력·흥미)		1			1		2		4
	독서자료						1	3		4
	지도방법		1		1			2	6	10
	독서실태				1					1
계		2		2	2	1	11	9	27(12.1)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			3	1	5	3	8	6		26(11.6)
자료이용실태				2	1	4	4	3		14(6.3)
자료이용평가						1	1	1		3(1.3)
정보공개· 보호·보안								4		4(1.8)
총 계 (%)		2 (0.9)	6 (2.7)	9 (4.0)	13 (5.8)	17 (7.6)	34 (15.2)	63 (28.1)	80 (35.7)	224 (100.0)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36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224편으로, 연평균 6.2편을 발표하여 자료조직 영역과 더불어 8개 영역 중 중간 정도의 연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35.7%, 연평균 26.7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28.1%(연평균 12.6편), 1990~1994년의 15.2%(연평균 6.8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논문수의 79.0%가 1990년 이후에 분포되어 있음을 볼 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분야라고 하겠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참고·정보봉사 분야가 전체의 51.3%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관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연장봉사, 도서관프로그램 등의 일반봉사와 장애인, 노인, 특수환경에 처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봉사, 대 공중관계 분야는 연구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대주제분야 중 특기할 만한 소주제분야를 들면 참고·정보봉사 분야의 일반(42편), 전자정보서비스(인터넷정보 서비스 포함, 32편), 참고·정보봉사 평가(24편)가 다른 소주제분야에 비해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보서비스와 참고·정보봉사 평가분야는 최근에 들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라고 하겠다.

2.6 서지학 영역

서지학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서지학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단위: 편)

항목		연도								계(%)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서지학 일반·이론				1	1	5	7	7	4	25(4.9)
	서지연구				1	9	22	20	18	70
체계 서지학	주제문헌연구		5	5	2	4	15	20	23	74
	계		5	5	3	13	37	40	41	144(28.5)
	형태서지학		5	7	3	14	67	51	43	190
분석 서지학	원문서지학		2	1	1	1	25	23	14	67
	역사서지학			1	1	3	16	23	18	61
	계		7	9	5	18	107	97	75	318(63.0)
	서지	목록·해제·종합 색인·초록						5	4	1
	서지 데이터베이스						1	1		2
	주제별 서지			3	2		1			6
	계			3	2		7	5	1	18(3.6)
총 계 (%)			12 (2.4)	18 (3.5)	11 (2.2)	36 (7.1)	158 (31.3)	149 (29.5)	121 (24.0)	505 (100.0)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36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505편으로, 연평균 14.0편을 발표하여 높은 연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4.0%, 발표량이 연평균 40.3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1990~1994년의 31.3%(연평균 31.6편), 1995~1999년의 29.5%(연평균 29.8편)의 순으로 나타나 역순을 보여주는 다른 영역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세 기간의 발표율도 전체의 84.8%로 나타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연구활동이 199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8개 영역 중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분석서지학분야가 전체의 6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체계서지학분야(28.5%)로서, 이 두 분야의 연구실적이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지분야의 경우는 발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주제분야에서는 체계서지학분야의 경우는 주제문헌연구분야(74편)가 서지연구분야(70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분석서지학분야의 경우는 형태서지학분야(190편)가 다른 소주제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어 특히 연구자들이 형태서지학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밖에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역사서지학과 원문서지학에 대한 관심도 점증되고 있다.

2.7 도서 및 도서관사 영역

도서 및 도서관사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도서 및 도서관사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단위: 편)

항목		연도								계(%)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도서 및 출판사(史)				1	1	6	5	5	1	19(25.7)
	전기		1				2	3	1	7(9.4)
도서관사	한국 (북한포함)		4	3	4	5	4	13	8	41
	서양				1		1	1	4	7
	계		4	3	5	5	5	14	12	48(64.9)
총 계 (%)			5 (6.8)	4 (5.4)	6 (8.1)	11 (14.9)	12 (16.2)	22 (29.7)	14 (18.9)	74 (100.0)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36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74편으로, 연평균 2.1편을 발표하여 장서개발(관리)분야와 더불어 8개 영역 중 연구활동이 가장 저조한 분

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18.9%, 연평균 4.7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29.7%(연평균 4.4편), 1990~1994년의 16.2%(연평균 2.4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제별 분야도 도서관사 분야가 전체의 64.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한국도서관사분야(41편)에 연구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정보학 영역

정보학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정보학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 현황 (단위:편)

항목		연도								계(%)
		67~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정보(학) 이론	일반		4	3	5	1	1	1		15
	정보커뮤니케이션				3	1	1		1	6
	정보경제학						2		2	4
	계		4	3	8	2	4	1	3	25(4.9)
정보검색	일반			1	1	5	19	20	14	60
	역사							2		2
	시스템				2	4	6	17	24	53
	비교·평가					5	6	18	14	43
	계			1	3	14	31	57	52	158(30.9)
자동분류				1	2	5	2	8		18(3.5)
자동색인	일반·시스템				1	5	5	7	3	21
	색인언어					1	2	4	2	9
	계				1	6	7	11	5	30(5.8)
자동초록·요약						1	1	4		6(1.2)
자동시소러스							5	3		8(1.6)
도서관자동화	일반(전체)			1		9	3	1	3	17
	수서·정리				1		1	1	3	6
	연속간행물			1						1
	대출				1		1			2
	계			2	2	9	5	2	6	26(5.1)
정보(관리) 시스템	일반		1			4	5	7	4	21
	전문가시스템					5	6	2		13
	지식관리시스템							4	7	11
	계		1			9	11	13	11	45(8.8)
계량서지학				1	5	5				11(2.1)
인용분석			1		3	8	10	4		26(5.1)
정보기술					1	1		1		3(0.6)

2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

이용자 인터페이스					1	2	6	6	15(2.9)	
정보처리					1	3	2		6(1.2)	
정보이용행태 (이용자연구포함)				2	2	6	19	16	45(8.8)	
도서관네트워크	일반					3	5	3	11	
	CD-ROM 네트워크					1	1	1	3	
	계					4	6	4	14(2.7)	
데이터베이스	일반				2	4	6	3	15	
	시스템					4	2	8	14	
	콘텐츠개발						2	7	9	
	평가						4	4	8	
	계				2	8	14	22	46(9.0)	
디지털도서관							7	5	12(2.3)	
참고질의시스템					1		2	2	5(1.0)	
정보정책					3	3	5	2	13(2.5)	
총 계 (%)			5 (1.0)	7 (1.4)	18 (3.5)	61 (11.9)	104 (20.3)	163 (31.8)	154 (30.1)	512 (100.0)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6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512편으로, 연평균 14.2편을 발표하여 1955년에 '정보학'이라는 용어가 세계 최초로 사용된 후²⁶⁾1970년대에 들어 그 개념이 국내에 소개²⁷⁾된 역사가 가장 짧은 분야임에도 8개 영역 중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30.1%, 연평균 51.3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31.8%(연평균 32.6편), 1990~1994년의 20.3%(연평균 20.8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세 기간의 발표율이 전체의 82.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

26) W. Boyd Rayward, "The Origin of Information Science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Bibliography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FID),"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48, No. 4(Apr. 1997), p.289.

이 밖에 '정보학'이란 용어의 최초 사용연도에 대한 견해를 보면 상기한 문헌의 1955년 외에 1956년이라는 견해(사공철 등편, 정보학사전(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1), p. 286)와 1957년이라는 견해(이경호, 고영만, 정보학(대구: 인쇄마당, 2002), p.19)도 있다.

27) 박준식의 색인에 의하면 '정보학'의 개념에 대한 글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1~1973년으로 나타나고 있다(朴俊植 編, 前掲書, pp.225-226). 대표적인 글을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Jesse H.Shera, "圖書館學, 다큐멘테이션, 情報學에 關하여,"李炳穆 譯, 도협월보, 제12권, 제3호(1971, 3), pp.9-14.

· 美國情報科學會, "圖書館學·情報學教育,"金宗會 譯, 도협월보, 제12권, 제7호(1971, 7), pp.19-22.

· 헤럴드 보르크, "情報科學 ; 그 正體는," 金斗弘 譯, 정보관리연구, 제5권, 제5호(1972, 10), pp.138-140.

· 鄭駭謨, "情報科學의 屬性과 文獻情報學,"圖書館學報(中央大學校 圖書館學會), 第2輯(1973, 6), pp.129-175.

· 崔成眞, "圖書館學과 情報學," 圖書館學報(中央大學校 圖書館學會), 第2輯(1973, 6), pp. 177-204.

영역도 전술한 대부분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반부터 관심분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분야라고 하겠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정보검색분야(30.9%)가 다른 주제분야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동초록·요약, 자동시소러스를 비롯한 10개 분야가 3%미만의 낮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대주제분야 중 특기할만한 소주제분야를 들면 정보검색분야의 경우 일반(60편)과 시스템(53편), 비교·평가(43편)가, 자동색인분야의 경우는 일반·시스템(21편)이, 도서관자동화분야의 경우는 전체(17편)가, 정보(관리)시스템의 경우는 일반(21편)이, 데이터베이스분야는 일반(15편)과 시스템(14편)이 다른 소주제분야에 비해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발표량은 적지만 1995년 이후에 새로이 관심분야로 등장하거나 관심도가 급속히 높아진 주제를 살펴보면 자동초록·요약, 지식관리시스템, 정보이용행태 및 이용자연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평가, 콘텐츠개발, 이용자 인터페이스, 디지털 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Ⅲ.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문헌정보학분야 7개 학회지와 16개 대학의 문헌정보(도서관)학과 창립 기념논문집(또는 기념호)의 1967~2002년까지 36년간 수록된 논문 2,271편과 전문학술지가 없었던 1957년~1970년까지 14년간 3개 전문기관지에 수록된 논문 597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46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정작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여 이 후 학술지 발표 논문수도 5년마다 거의 배증현상을 초래하는 등 급속한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변화는 곧 변화추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동향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1990~2003년 사이에 무려 21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를 보면 각 영역별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주제 세분화에서 대부분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시기적 변동단계의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경향조사 연구의 경우에는 학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일반화를 위한다면 가능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대부분 부분조사로 그쳐 역시 각 영역 전체의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 주제분야의 연구동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분석적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발표논문의 경우 1967~2002년까지 발표된 논문의 연평균은 63.1편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표량은 2002년이 261편으로 가장 많고, 그 순위는 1997년까지 거의 역연도순으로 나타나 최근 7년 동안의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출하는 연구인력의 증가와 연봉제, 계약제, 교수 연구업적평가제 등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도 그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영역별 발표논문 현황은 정보학, 서지학,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공공봉사, 문헌정보학기초, 도서 및 도서관사, 장서개발(관리) 영역순으로 나타나 1980년대 중반까지 보여주었던 순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3. 연구활동의 연계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3대 전문기관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1957~1970년간의 발표 논문수는 연평균 42.6편으로 나타났고, 5년 단위 연도별로는 1966~1970년 간이 연평균 81.2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도서관경영, 서지학, 공공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보학 영역이 두드러졌던 1970년대 이후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띄었다.

4. 영역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문헌정보학기초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4.1편, 주제별로는 문헌정보학교육분야가 전체의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서관경영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13.8편, 주제별로는 도서관경영론 전반과 도서관 상호협력(망), 인사관리 등 3개 분야가 10~18%로 타 주제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남
- 자료조직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6.7편, 주제별로는 목록법분야가 전체의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서개발(관리)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2.0편, 주제별로는 장서개발(관리)정책·방침과 장서평가분야가 공히 전체의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공봉사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6.2편, 주제별로는 참고·정보봉사분야가 전체의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지학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14.0편, 주제별로는 분석서지학분야가 전체의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서 및 도서관사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2.1편, 주제별로는 도서관사분야가 전체의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보학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14.2편, 주제별로는 정보검색분야가 전체의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